

# 장수군, 청렴 역사 새로 썼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군 개청 이래 최초 '1등급' 달성

장수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시행된 이후 또 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거둔 성과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평가대상 총 709개 기관 중 28개 기관이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불과 6개 기관만 1등급을 받았고 전북자치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해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장수군의 평가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무려 3단계가 경증 뛰었고 3단계 상승과 최고등급인 '1등급'을 동시에 기록한 기관은 장수군이 유일해 서 더욱 값진 것이라는 평가다.

장수군은 민선8기 동안 행정 전반에 청렴 가치를 핵심 기준으로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군정의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수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평가에서 청렴시책 추진 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 민원인 대상 설문인 청렴체감도, 공직자의 비위·부패행위 발생 시 감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장수군은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정비를 병행하며 청렴이 일상적인 행정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공직자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모든 군정업무에 청렴 원칙을 우선 적용해 군민들의 청렴 체감도를 꾸준히 향상시켜왔다.

특히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제도 운

영 필요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해 청렴 추진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관장이 직접 청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점검이 이뤄진 점도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성과는 군에서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컨설팅·자체실문 등을 통한 취약분야 정밀 진단 △직장 내 괴롭힘·부조리 근절 조례 제정 △감찰·부패신고센터 전면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온 실질적인 청렴 시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6개월 만에 1억원 달성'

진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학천지구 복합문화관광 구축사업'이 모금 시작 6개월 만에 누적 모금액 1억 원을 달성했다.

이번 모금사업명은 "학천지구 복합 문화관광 구축사업"으로 도심 기능 강화와 녹색도시(Green City)로의 변모를 목표로 추진되는 군의 대표적인 도심 재생사업으로 현재 읍소재지 중심지인 학천지구 1·2·3블럭의 지혜의숲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온기뜰마을마



루, 공영주차장과 상부의 문화관광 등 자연과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은 학천지구 상부에는 군민을 위한 문화관광

(5,140㎡), 하부에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180면)을 조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기부사업의 모금 기간은 2026년 12월말까지이며, 목표 모금액은 6억 원으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군은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확산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 진안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미담, 업무협약

국내 홍삼 산업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홍삼 제품이 본격적으로 국내 온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진안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정배)은 (주)미담(대표 이경신)과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국내 대표

적인 온라인 소포 플랫폼인 쿠팡, 이베이, 옥션, 네이버 스토어 등에 진안 홍삼 제품을 공식 입점 시키기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미담은 그간 축적해 온 국내 온라인 소포물 운영 역량과 업무 협의를 통해, 진안홍삼 제품의 국내



온라인 소비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읍 무주읍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 소통·생활문화 활동 공간,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준공식이 지난 24일 개최됐다.

# 윈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

### 무주읍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준공... 주민 소통·문화 거점 기대

무주읍이 무주읍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 소통·생활문화 활동 공간,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준공식이 지난 24일 개최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읍 무주읍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추진 경과보고 등의 기념식에 함께 했으며, 4층 규모(연면적 740㎡)로 조성된 각종별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준공을 계기로 무주읍, 나아가 무주군에 더 큰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생활문화어울림센터' 및 '청년센터'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31번에 조성된 '세대공감어울림센터'는 2024년 착공해 지난 15일 준공했으며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6년 상반기부터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무주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세대공감어울림센터 1층에는 동아리방, 2층에는 강사실과 강의실, 동아리방 등을 갖췄으며 3층에는 무주군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이 입주할 예정이다. 4층에는 4개 호실의 공동체 생활공간이 조성됐다.

한편,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무주군이 2021년 총사업비 191.87억 원 규모의 공모에 선정되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윈도심의 주거 환경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그동안 △집수리 지원, △집수리실습장 및 마을기업 공간 조성, △노후도로 정비, △윈도심 거리 조성, △정암마을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생활문화 활동과 지역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어울림센터 및 청년센터 조성 사업은 내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4년 착공해 지난 15일 준공했으며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6년 상반기부터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무주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세대공감어울림센터 1층에는 동아리방, 2층에는 강사실과 강의실, 동아리방 등을 갖췄으며 3층에는 무주군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이 입주할 예정이다. 4층에는 4개 호실의 공동체 생활공간이 조성됐다.

한편,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무주군이 2021년 총사업비 191.87억 원 규모의 공모에 선정되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윈도심의 주거 환경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그동안 △집수리 지원, △집수리실습장 및 마을기업 공간 조성, △노후도로 정비, △윈도심 거리 조성, △정암마을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생활문화 활동과 지역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어울림센터 및 청년센터 조성 사업은 내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 두각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역 청소년들의 소통 창구이자 정책 참여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군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운영 중으로, 무주군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이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활동 위원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생(14~18세)들로 구성됐으며 현재는 17기 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올해 4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 청소년 자치 기구와의 교류, 전북 지역 청소년 박람회 등에 참석해 경문을 넓혔으며 무주군 청소년 문화축제 '꿈' 행사장에서는 부스 운영 지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지난 23일 무주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학교 주변과 생활권 내 안전 사각지대, 금연 구역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짚으며 '청소년 안전거리 조성 및 금연 구역 개선 프로젝트'를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제안했던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등 14건은 무주군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인센티브 1,1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상반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우수한 징수 성과를 이어간 것으로, 연속적인 성과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율과 징수를 신장, 체납차량 변호관 영치, 공매 실적 등 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진안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로 위해 읍·면 징수대책 보고회를 추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체납차량 변호관 영치, 경매·공매 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며 체납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진안=우태민 기자

### 장수사와 40년 역사담은 '붉은빛갈무지개 시사회' 개최

장수군은 장수사와의 40년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붉은빛갈 무지개 시사회'를 지난 20일 장수 한누리영화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장수문화원이 추진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 자산을 문화 콘텐츠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시사회는 장수사과를 일궈낸 재배 농가와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과 산업의 형성과 성장 과정, 농가의 일상과 변화된 삶의 모습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품 연출은 이은신 감독이 맡아 장수사과가 지역의 대표 농업 자산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차분하게 풀어냈다.

관람 후에는 장수사과의 역사적 의미와 이를 영상으로 기록한 문화적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